[C레벨 영입][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터 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가 네이버 검색광고사업부 부장과 라온시큐어 전략기획실 이사를 역임한 임성준 전 악어디지털 이사(사진)를 벤처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성준 벤처 파트너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야후,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IT대기업 입사 전후로는 웁스코리아, 스테이즈 등 두 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해 약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인공지능(AI)기반 문서 디지털화 스타트업 악어디지털에서 이사로 활동했다.임 신임 파트너는 가천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분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 융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저서로는 <스타트업 아이템발굴부터 투자유치까지>,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을 혁신하는 법>, <대기업을 이긴 한국의 스타트업> 등이 있다.임 신임 파트너는 MYSC가 연간 육성하는 300여개의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IR덱(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영업 전략, 투자유치 전략 등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MYSC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시리즈A 단계를 넘어선 스타트업에게 스케일업 전략과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임 신임 파트너는 "혁신을 돕는 혁신기업인 MYSC에서 예비창업자나 창업 이후 어려움을 겪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